

“소상공인 종합 지원”... 복구, 33개 사업 36억 투입

경영활동 전반 지원 계획 추진 경쟁력 강화·골목상권 활성화 마케팅 지원·사업장 환경 개선 등 “분야별 실질적인 지원 나설 것”

광주 복구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3개 사업에 36억원을 투입한다.

2일 복구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제 둔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을 수립했다. 복구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2만3000여 소상공인 사업체가 소재,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과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 금융소외계층 포용적 지원 등 3개 분야 33개 사업에 36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6개 사업과 14억원 상당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세부 사업에는 소상공인 지원 거점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부터 마케팅 지원, 사

업장 환경 개선 사업,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과 ‘인공지능 기반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 지역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돕겠다는 취지다.

또 특례 보증, 대출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흐름의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

문인 복구정장은 “얼어붙은 내수경제로 인해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소상공인이 행복한 복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작년 전국 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과기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 선정, 지역 금융활성화 유공 특교세 2억원 확보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정승우 수습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동구, 6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전일빌딩~금남로공원 일대

광주 동구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전일빌딩 245~금남로공원까지 5차로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두번째로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대·자·보 도시로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이날 봄 날씨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친환경 유소년 축구대회’와 동구 화원협회가 참여하는 ‘봄꽃 전시장’을 새롭게 운영한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누구나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아나바다 장터도 열리며, 이와 함께 버스킹 공연, 길 위의 서점, 푸드트럭,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날 수 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로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인증샷 확인을 통해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통해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봄을 만나며 여유롭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면서 “주민들께서는 대·자·보로 행사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첫 운영에 나선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는 1만1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윤준명 기자

제2기 아동구정참여단 모집 광산구, 25일까지 접수

광주 광산구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 권리증진을 위해 제2기 광산구 아동구정참여단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 구정참여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동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된 아동 참여 기구다.

모집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광산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0세~15세 아동(초4~중3) 4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아동은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 정책의제 발굴·제언,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 아동권리 교육 및 캠페인, 정책 결의문 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의제를 선정해 주제와 관련된 특별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광산구의회, 아동권리협약기관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가 아이들의 정책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아동권리 증진 활동에 힘을 보탠다.

신청 기간은 25일까지며, 광산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광산구 여성아동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1EtZj)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남구, 오는 5월 16일까지

광주 남구는 폐지 줍는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폭염에 따른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를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생계 차원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추진 자료로 활용된다.

남구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폐지수집 어르신의 불미스러운 사고 예방과 띄약별 속도동 해방을 위해 오는 8월 한달간 자원 재생 활동단 참여를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원 재생 활동단 모집은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실태조사를 비롯해 정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수습기자



광주 서구는 2일 ‘서구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발대식을 갖고 활동 방향과 주요 연구 주제를 공유했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공직자 ‘정책개발 연구모임’ 발대

창의적 아이디어 구정접목 목적 7팀 40명 선발...9월까지 운영돼

광주 서구는 2일 ‘서구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발대식을 갖고 활동 방향과 주요 연구 주제를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공직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

정에 접목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서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체크리스트 서식 제작 ‘체크메이 트’ △스마트그린-리빙랩 모델 구축 ‘SG-Lab’ △책 없는 도서관 조성 ‘서구 뚜벅이들’ 등 연구모임 7팀 총 40명을 선정했다.

각 연구모임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자료 조사 및 타 지자체 사

례 분석’, ‘전문가 자문’,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혁신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구는 원활한 연구모임을 위해 참고 자료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연말에는 우수 연구모임을 선정해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구정을 가장 잘 아는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남구 수피아여중·고 통학로 전봇대 ‘이전 촉구’

진보당 남구위원회 주민 청원 백운·양림동 등 주민 700여명 서명 비좁은 인도...학생들 차도로 이동

광주 남구 수피아여중·고 통학로 입구에 설치된 전봇대 이전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남구와 진보당 남구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진보당 남구지역위원회는 지난 1일 남구청 민원봉사과에 ‘수피아여중·고 통학로 입구 전봇대 이전 주민 청원’을 접수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지난 3월부터 백운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 주민 7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 수피아여중·고 앞 통행로 한가운

데 전봇대가 설치돼 있어 인도가 비좁아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학생들이 물리는 시간에는 이동을 위해서 차도로 내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미영)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박미영 진보당 남구지역위원장은 “전봇대가 이설되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수습기자



광주 남구에 위치한 수피아여중·고 통학로 입구에 설치된 전봇대.

남구지역위원회 제공

광산구, 공유재산관리 1위 자치구 평가서 2년 연속 달성

광주 광산구는 2025년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에서 지난해 5개 자치구의 공유재산 위임관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재산관리 실태, 대부실적,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 매각실적, 공유재산 관리 노력도 등 7개 부문 16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자 및 목적 외 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신규 대부계약 체결 등 재정건전성 확보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또 지난해 최초 도입한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을 통해 6000만원 특별교부세 확보 등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썼다.

광산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 30% 귀속율과 1500만원의 공유재산 관리 보조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